

# 하늘꽃 마음꽃


제2086호  
2020.10.11  
연중 제28주일



말씀의 씨를 솔솔~


말씀꽃씨




마태오  음 (22,1-14)

그때에 예수님께서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<sup>1</sup> 말씀하셨다.

<sup>2</sup> “하늘 나라는 자기 아들의 **혼식**  **치**를 베푸는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.

<sup>3</sup> 그는 종들을 보내어 혼인 잔치에  **대**받은 이들을 불러오게 하였다. 그러나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.

<sup>4</sup>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일렀다. ‘초대받은 이들에게,

‘내가 **잔치**  을 이미 차렸소. 황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, 어서 혼인 잔치에 오시오.’ 하고 말하리라.’

<sup>5</sup>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, 어떤 자는  으로 가고 어떤 자는 **장** <sup>4</sup> 하러 갔다.

<sup>6</sup>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 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였다.


<sup>7</sup> 임금은 진노하였다.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없애고 그들의 고을을 불살라 버렸다.

<sup>8</sup> 그리고 나서 종들에게 말하였다. ‘혼인 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자들은 마땅하지 않구나.

<sup>9</sup> 그러니 고을 어귀로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.’

<sup>10</sup> 그래서 그 종들은 거리에 나가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이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. 잔치방은 손님들로 가득 찼다.

<sup>11</sup> 임금이 손님들을 둘러보려고 들어왔다가,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하나를 보고,

<sup>12</sup> ‘친구여, 그대는 혼인 **예**  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나?’ 하고 물으니,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.

<sup>13</sup> 그러자 임금이 하인들에게 말하였다. ‘이자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.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.’

<sup>14</sup> 사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.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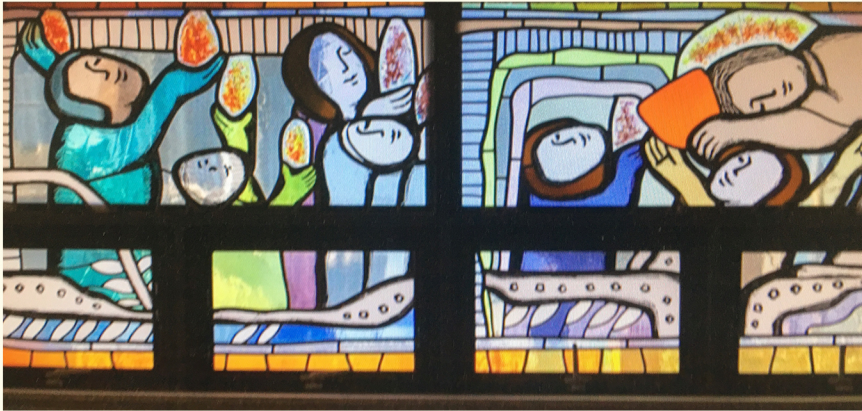
그림 속으로 고고씩~

# Visio Divina

Visio Divina(비지오 디비나)는 그림으로 쉽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~



잔칫상



삼산성당 (울산)

**“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.”**

(로마 13, 14)

우리 모두는 잔칫상이라는  
하느님 나라에 초대받은 이들.  
하느님게로부터 초대 받았는데도  
바쁘다고 안 오는 친구들 없겠죠?  
혹은 합당하지 않은 옷을 입고 오는  
친구들도 없겠죠?







묵상의 시간~



# 그림 묵상



우리는 어떤 예복을 갖추고  
예수님을 만나나요? ♥

